

위촉장 수여식



협회는 2001년 5월 31일(목) 기관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각 위원회로서는 미래를 향한 정책개발 Think Tank 마련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위원장 이명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외 6명으로 구성하였고, 방사선방호와 이용자의 자율안전성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방사선안전위원회”를 위원장 임용규(동

위원소교육연구원장) 외 4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제간 협력을 통한 R이용진흥을 위해서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허남(현대원자력 대표이사)외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R운용에 필요한 각종정보와 통정, 그리고 교양의 함양 증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위원장 채화묵(한양종합검사(주) 회장)외6명으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유관기관동정

서울중앙병원

- 울산의대 김재중교수 논문 권위지에 실려 -

서울중앙병원 김재중 교수의 논문이 심장내과학 부문의 세계적 권위지인 서큘레이션지에 실렸다. 김재중 교수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핵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한 심부전증의 예후와 예측’으로 이 논문은 이날 발행된 서큘레이션지 1백3호에 게재됐다. 서큘레이션지는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 심장 방사선 부문의 세계적 권위자인 텍사스 의대 멀로이 교수의 ‘논평’을 곁들이며 이번호의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최근 2년간 말기 심부전증 환자 1백30명을 대상으로 MRS를 이용, 관찰한 결과 환자들의 뇌에너지가 줄어들고 뇌 신경세포의 손상이 심할수록 수명이 짧아졌다고 보고했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제25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

지난 5월 26, 27일 양일 간 아산재단 강릉병원 대강당에서 제25차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경숙(강릉병원 핵의학과장)은 게이트 심근관류 SPECT의 임상적 적용에 대하여, Kanao(일본핵의학기술학회)는 일본 핵의학기술학회의 현황에 대하여 그리고 박재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전산망 운영에 대하여 각각 특강을 해주었다. 이후 일반연제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상호변경 및 사무실 이전

◆ 에스엔티테크(주)

에스엔티테크(주)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9 신세기프라자 610호
- 전화번호 : 031-382-4761-2 / Fax 031-382-4763

◆ (주) 삼영 유틸텍

한국원자력기술(주)이 6월 1일자로 상호가 (주) 삼영 유틸텍 으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원우엔텍(주)

원우기술검사(주)의 상호와 대표자가 5월 31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관 명 : 원우엔텍(주)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3-1 상가A동2층
- 대 표 자 : 김태중
- 전화번호 : 02-3427-7333~6

◆ 국제비파괴검사(주)

국제비파괴검사(주)가 이사 함에 따라 6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주소가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500-2 녹산국가공단내
- 전화번호 : 051-831-5757/ Fax 051-831-5662

◆ (주) 에스티엑스 제1공장

쌍용중공업(주) 창원공장이 2001.5.17자로 (주) 에스티엑스 제1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동정

동아시아 원자력 전망

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만의 4번째 원전 건설을 중단했을 때 반핵 활동가들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반핵 캠페인의 역사적 전개를 보게 됐다고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지난 2월의 건설재개 결정과 일본의 신규원전 건설 승인 등으로 환경단체의 승리는 실패로 돌아갔고 원자력 산업계는 신속히 회복했다. 이제 동아시아는 원자력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다. 국제원자력사업자연합(WANO)의 전략국장 스티브 키드는 “이 지역은 신규 원전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전체 전력생산의 36%, 대만은 2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수요량은 경제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산업계는 중국을 미래 원자력 수요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2개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4개가 건설중인데 2004년경 이들이 공급하는 전력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악화를 걱정하는 고위 중국 관리의 향후 20년간 약 20배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력 과잉공급으로 이러한 논란이 힘을 잃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증가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있다. 원자력 재도약의 희망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최근 에너지 정책으로 더욱 커졌다. 원자력 공학자의 복귀와 함께 원자력은 지난 세기의 기술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키드는 말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원전 건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적당한 원전 부지를 찾는 일이 어렵고 따라서 원전건설 반대 캠페인이 지역별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개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아직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원전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